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제 안 설명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2. 계약연장 지원사업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등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3.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 수여, 홍보, 표창 등의 인센티브 제공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5. 고용안정 및 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기금 설치 근거 마련
6.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운영

본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등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의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